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자살충동에 미치는 인과관계의 성별 차이검증

노윤채*, 김경숙**, 박희서***

The Test of Gender Difference on the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Adolescent's Academic Stress and Suicidal Thoughts

Yun-Chae Noh*, Kyung-Sook Kim**, Hwie-seo Park***

요 약

이 연구는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자살충동에 이르는 인과경로에 있어서 인과관계가 성(gender)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해 봄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해 보는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는 우울감을 통하여 자살충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스트레스와 우울감 사이의 인과관계와 우울감과 자살충동 사이의 인과관계에서 성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Keywords : 자살충동, 학업스트레스, 우울

Abstract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academic stress and suicidal thoughts via depression and gender differences of causal relationships in each causal path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some implications based on this analytical results. For this purpose, we conducted interviews using a questionnaire targeting high school students. The analytical results shows that adolescent's academic stress has a significant effects on their depression and suicidal thoughts, and adolescent's depression also has a significant effects on suicidal thoughts. This study suggests some implications based on this results.

▶ Keywords : suicidal thoughts, academic stress, depression

· 제1저자 : 노윤채 · 교신저자: 김경숙, 박희서

• 투고일 : 2015. 4. 1, 심사일 : 2015. 4. 16, 게재확정일 : 2015. 4. 16.

* 조선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Dep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Chosun University)

** 조선이공대학교 사회복지과 (Dept. of Social Welfare, Chosun College of Science & Technology)

*** 조선대학교 행정복지학부 교수 (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 Social Welfare, Chosun University)

I. 서론

청소년의 자살은 전체 연령 가운데 가장 높은 사망원인으로 나타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자살통계자료에 의하면,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31명으로 10년 전(7.4명)보다 4배 이상 높아지고, 이는 OECD회원국 평균자살률보다 3배가량 높은 수치이며,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가지게 되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이 자살한 이유는 학교문제, 부모와의 갈등, 우울증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1].

청소년기는 또래집단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는 시기이며, 또래집단의 따돌림이나 폭행 등 자존감에 큰 상처를 주어 우울증과 자살충동으로 이어진다. 또한 청소년들은 성장과정에서 가정불화로 인한 가족 간 갈등이 심화될 경우,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하여 자살충동을 느끼게 되고, 이에 따라 위험행동을 저지를 수 있다[2].

이와 같이 청소년 자살은 계획된 시도가 아니라 심리적 고통에서 탈출하기 위해 비롯된 것이다. 청소년들의 자살충동은 개인적 심리상태와 학교생활, 부모와의 관계, 친구관계, 학업 성적, 사회 환경 등 문제에서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은 청소년들에게 학업 스트레스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입시경쟁은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중학생들에게도 좋은 성적을 요구한 부모들의 태도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자살충동의 원인이 되고 있다.

청소년 시기에 자살에 대한 생각이나 시도가 자살행위로 이어지는 실제 비율은 낮으나 자살 가능성은 크며[3], 무의식 중에 자살충동, 자살행동이나 시도가 항상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자살충동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충동의 역제를 위해서는 학업스트레스와 청소년 자살충동 사이의 인과경로에 대해 체계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자살충동에 이르는 인과경로는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 및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것은 남학생과 여학생은 심리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자살충동에 대한 억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성차이와 같은 개인적 특성에 따른 차이 분석을 바탕으로 성별에 따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충동의 형성과정에서 성별 차이를 검증해 봄으로써 이론적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는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II. 이론적 배경

2.1 청소년 자살충동에 관한 관점

2.1.1 자살충동에 대한 제관점

자살에 대해서는 사회학적 관점과 심리학적 관점에서 연구되어 왔다. 사회학적 관점의 연구로는 Durkheim(1897)의 연구가 있으며, 심리학적 관점의 연구로는 Freud의 연구가 있다. 즉, Durkheim은 자살을 개인현상에서 나타난 사회학적으로 분석하여 그 이면에 내재되어있는 사회적 의미로 분석하였으며, Freud는 개인의 심리학적 특성을 밝히려는 심리학적 입장에서 접근을 시도하였다. 최근에는 신학적, 유전-생물학적, 스트레스-취약성 이론 등 다양한 이론들이 제안되고 있다.

첫째, 사회학적 관점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 환경적·연구학적 요인 등 통계적·사회적 접근에 그쳤지만 Durkheim에 의해 체계적으로 연구되었다. 그는 사회통합가설에서 개인들이 속해있는 사회에 통합된 정도와 자살률이 반비례 한다고 주장하였다. Durkheim은 자살을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4]. 첫째, 이기적 자살(Egoistic suicide)로, 지나친 개인주의 또는 사회에 대한 불충분한 통합의 결과로 야기된다고 하였으며, 둘째, 아노미성 자살(Anomic suicide)로, 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개인의 가치관 혼란으로 인해 야기된다고 하였다. 셋째, 이타적 자살(Altruistic suicide)로, 개인이 사회에 지나치게 통합된 나머지 자신보다 사회집단을 우선시하는 생각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넷째, 숙명론적 자살(Fatalistic suicide)로, 개인이 선택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강력한 사회적 속박에서 개인의 삶이 종속되어 자포자기식으로 살아가는 노예나 포로와 같은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구분하였다. 이 같은 Durkheim의 자살 구분 유형은 외부적인 사회현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개인적인 특성이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살과 관련해 개인의 심리적 요인들을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지적되고 있다[5].

둘째, 심리학적 관점에서는 자살에 대해 정신분석학적 연구가 시도되었다. Freud에 의하면, 증오가 자신에게 내면화되어 우울함이 발생하고, 이것이 극대화 되었을 때 자기 파괴적인 행위로 자살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자살의 공격적인 측면 보다는 성욕적인 측면을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6]. 그리고 Baumeister(1990)는 자살을 '자기로부터의 도피'로 자기와 관련된 고통스러운 감정과 생각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6단계로 개념화 하였다.

청소년기는 자기도취적 욕구가 높으므로 자신이 바라는 이상과 현실 간의 괴리가 커질 가능성이 높아 우울감과 부정적인 자기평가를 하게 되고, 이로부터 도피하고자 하는 충동이 강해지게 된다. 이로 인해 고통스러운 심리상태에서 즉각적으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져서 인지적 몰락 상태에 이르게 된다. 즉, 모든 사상에 의미를 부여하기를 거부하고 모든 것을 피상적이고 가치가 없는 것으로 지각하고 해석하는 정신상태가 초래되어 충동적으로 자살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7].

셋째, 신학적 관점에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자살을 인간의 자유를 그릇되게 행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는 윤리적으로 옳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생명을 스스로 종결짓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하였다[8].

넷째, 유전-생물학적 관점에서는 자살의 영향요인으로 정신과적 치료나 중독 장애의 가족력, 심리-사회적인 요인과 성격요인을 포함한다. 이 관점의 연구에서는 자살이력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자살률과 자살시도 비율이 현저하게 높고, 자살성향 자체가 유전자를 통해 후대에 전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자살성향의 배후에는 정신질환에 취약한 유전자가 있으며 그것이 유전된다고 보기도 하고, 세라토닌이 자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도 있다[9].

다섯째, 스트레스-취약성 이론은 자살과 관련된 이론들을 보완하기 위해 제시된 것으로, 개인과 사회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설명할 수 있다. 이 이론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적, 사회·심리적 요인과 개인이 속한 환경의 상호작용 경험이 심리장애의 원인이 된다고 본다. 즉, 취약성이 많은 개인은 어떠한 스트레스에 대하여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적어서 쉽게 심리장애를 갖거나 자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반면에 취약성이 적은 사람은 심한 스트레스에도 잘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스트레스-취약성 이론에서는 자살의 배경이 되는 취약성 요인(risk factors)과 자살을 일으킬만한 환경적 스트레스 요인인 촉발사건과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한다. 또한 충동적 성향을 가진 청소년들의 자살을 잘 반영하는 이론으로 연구 되었다[10].

2.1.2 청소년 자살충동 연구의 관점

현대를 사는 청소년들은 학교성적, 학업에 대한 적성, 수업의 형태, 부모나 주위의 지나친 기대 등 심리적 불안, 갈등을 겪고 있으며, 이 취약성 요인에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한 청소년들이 돌발적인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이 같은 취약성 요인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충동적인 상황을 야기 시

킨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의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취약성 요인을 살펴보면 학업 스트레스가 많은 청소년들에게 심리적 갈등과 불안을 가장 많이 발생하는 주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취약성 이론에 근거하여 청소년들에게 자살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이 자살충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검증해 보고 이러한 인과관계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해 본다.

2.2 학업스트레스와 우울 및 자살충동

첫째, 학업스트레스와 자살충동과의 관계이다. 현 교육제도는 청소년들에게 학업과 관련하여 많은 스트레스를 야기하게 된다. 입시위주의 경쟁을 부추기는 학교교육과 과도한 학업부담, 시험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청소년들에게는 심리적 열등감이나 부담감으로 작용한다. 학업에 대한 부담감과 가족들의 기대 등은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청소년 자살충동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적절한 대처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은 극단적인 자살로 이어지게 된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살충동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11], 학년에 관계없이 대학입시라는 스트레스가 자살충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2]. 또한 학교성적과 입시스트레스의 압박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에 부담을 많이 받는 고등학생이 중학생 보다는 더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청소년 자살충동의 위험성은 연령이 올라갈수록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고 그 수위 또한 점점 높아지고 있다[13].

둘째, 학업스트레스와 우울과의 관계이다. 청소년기의 우울은 청소년들에게 무력감, 불안감, 좌절감, 의욕상실, 비관적 사고와 같은 인지적 기능, 정서적 기능, 그리고 식욕부진, 불면증 등 생리적 기능까지 포함하여 나타나게 된다. 우울은 가장 흔한 정신질환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감정의 하나로 정상인들이 스트레스나 일시적 사건에 의해 나타나는 가벼운 우울반응에서부터 정신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정상적 반응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인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청소년기의 우울은 가족관계, 또래관계, 학교생활 등에서 받게 되는 다양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다. 특히 학교생활에서 경쟁의식이 지나친 가운데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이나 또래관계의 실패 등으로 인하여 무력감이나 좌절감을 느끼는 경우에 청소년의 우울이 발생하게 된다.

셋째, 우울과 자살충동과의 관계이다. 우울증은 신체, 기분, 사고 및 행동의 모든 면에서 나타나며, 식사, 수면, 자신에 대한 느낌, 사물에 대한 생각 등에 영향을 미치며, 자살충동과 관련하여 단일요인으로 가장 위험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

다. 이러한 우울감은 모든 연령에서 나타나는 자살이나 자살 충동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리장애로 간주되고 있다. 김기환(2000)의 연구에서는 청소년 자살에 우울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10], 다른 자살위험 요인들을 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다양한 스트레스에 의한 우울은 청소년기에 있어서 자살충동을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이다. 자살을 시도했거나 생각하고 있는 많은 청소년들이 우울증을 보이고, 고등학생의 생활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증이 높게 나타났으며, 자살충동 역시 높게 나타났다 [14, 15]. 또한 청소년 자살시도자의 특성이 우울증 환자의 특성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6].

2.3 성 차이에 대한 선행연구

그 동안 성 차이에 대한 연구는 민감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한 영역 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모형의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가 성(性)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연구는 드문 편이었다. 성을 대상으로 그 동안 이루어진 연구들 중에서 가장 흥미있는 연구로는 여성은 남성보다 정서적 피로를 더욱 느끼는 반면에, 남성은 여성보다 동료의 몰개성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17].

III. 연구 설계

3.1 연구모형과 가설의 설정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학교생활스트레스가 우울감을 야기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자살충동을 느낄 것이라는 가정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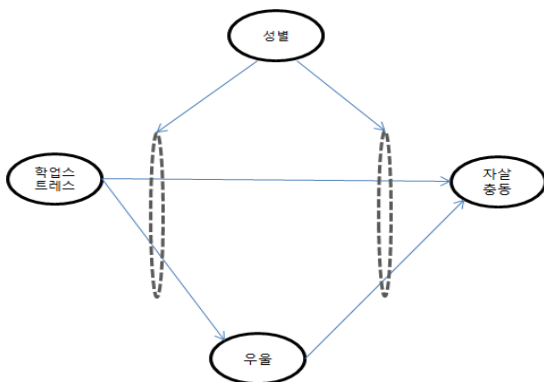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Fig.1. Research Model

여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 <가설1>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2> 청소년의 우울감이 청소년의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3>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3.2 변수의 조작화 및 측정

첫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살충동을 측정하기 위해 Reynold(1998)[16]의 연구에서 사용하였던 자살충동 척도 (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이러한 자살충동에 대한 척도는 청소년의 자살에 대한 생각, 계획, 시도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지난 1년간의 자살에 대한 생각의 빈도를 측정하여 '전혀 없다(1점)'에서부터 '거의 매일(5점)'척도의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과 관련된 충동이 많을 것으로 판단코자한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자살충동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였으며 Cronbach's $\alpha = .689$ 이었다.

둘째,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도구는 박재연[18]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구성을 수정 보완하여 14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5점 Likert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구성하였다. 하위요인으로는 학교 성적과 시험에 대한 경쟁이나 부모의 기대 등에 의한 성적과 시험 스트레스, 학교의 수업방식이나 숙제, 수업방식 등에 대한 수업스트레스, 공부방법이나 적성에 맞지 않는 공부 등에 의한 공부스트레스 등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의 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학업스트레스의 Cronbach's $\alpha = .698$ 이었다.

셋째, 우울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도구로는 Fauistich 등 [19]이 아동과 청소년용으로 개발한 CES-DC(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for Children)와 Kovacs[20]의 CDS(Children's Depression Scale)를 참고하여, 무력감, 절망감, 무가치함, 외로움 등의 차원으로 구성하였다. 여기서는 수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Cronbach's $\alpha = .735$ 이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우울을 청소년 자살충동과 관련하여 독립변수로, 학업스트레스와 관련해서는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3.3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G광역시 전 단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표본추출하여 이루어졌다. 총 3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313부가 회수되어 92.1%의 회수율을 보였다. 그 중 15부를 제외한 335부를 연구의 자료로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V. 실증분석

4.1 측정도구 검증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분석방법은 내적 일관성을 고려한 Cronbach's α 계수를 바탕으로 실시하였는데, 학업 스트레스, 우울, 청소년 자살충동 등 3개의 변수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구성개념의 신뢰도는 학업 스트레스는 0.698, 우울은 0.735, 청소년 자살충동은 0.689, Cronbach's α 가 모두 0.6이상으로 측정도구가 일관성을 갖는 것으로 분석결과 나타났다.

4.2 기술적 통계

4.2.1 각 변수의 기술통계

본 연구의 주요 변수들의 기술적 통계분석을 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첫째, 청소년기 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는 평균 3.582로 나타나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들의 우울감은 평균 2.516으로 나타나 우울감의 정도는 보통 이하로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들의 자살충동은 평균 1.988로 나타나 보통 이하로 나타났다.

표1. 기술통계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변수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학업스트레스	3.582	.869	-.014	-.319
우울	2.516	.969	.577	-.356
자살충동	1.988	.585	2.185	5.078

4.2.2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업스트레스는 청소년의 우울($r=0.406^{**}$)과 매우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살충동($r=0.198^{**}$)과도 매우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의 우울감과 자살

충동 사이의 관계는 $r=0.631^{**}$ 로 상관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 청소년의 우울감이 자살충동과 가장 높은 관련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2. 상관관계분석
table 2. correlation matrix

변수	학업 스트레스	우울	자살 충동
학업스트레스	1.000		
우울	.406 ^{**}	1.000	
자살충동	.198 ^{**}	.631 ^{**}	1.000

4.3 가설검증

청소년 학업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해 보기 위해 성별에 따른 조절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절효과분석은 세 단계로 나누어 실시하였는데, 먼저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우울감 사이의 인과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고, 다음으로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자살충동 사이의 인과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우울감과 자살충동 사이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표 3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성의 조절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학생의 경우에는 경로계수가 .279, C.R. 값이 4.011, 유의확률이 $p=.009$ 로 나타나, 청소년들의 학업스트레스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학생의 경우에도 경로계수가 .373, C.R. 값이 13.651, 유의확률이 $p=.000$ 로 나타나,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업스트레스와 우울감 사이의 인과관계에서 성의 조절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성별 차이에 대한 유의확률 p 값이 0.029로 나타나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은 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 1>은 채택되었다.

둘째,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이들 변수 간 인과경로에서 성별 조절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학생의 경우에는 경로계수가 .137, C.R. 값이 3.308, 유의확률이 $p=.019$ 로 나타나, 청소년들의 학업스트레스가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경우에도 경로계수가 .201

C.R. 값이 4.537, 유의확률이 $p=.001$ 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업스트레스와 자살충동 사이의 인과관계에서 성의 조절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성별 차이에 대한 유의확률 p 값이 0.463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가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은 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 2>은 채택되었다.

셋째, 청소년의 우울감이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성별에 따른 조절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학생의 경우에는 경로계수가 .452, C.R. 값이 7.510, 유의확률이 $p=.000$ 로 나타나, 청소년들의 우울감이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학생의 경우에도 경로계수가 .382, C.R. 값이 4.549, 유의확률이 $p=.008$ 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우울감이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청소년의 우울감과 자살충동 사이의 인과관계에서 성의 조절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성별 차이에 대한 유의확률 p 값이 0.013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우울감이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은 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 3>은 채택되었다.

표 3. 성의 조절효과 분석결과
table 3. The results of moderating effects of gender

인과관계	집단	경로 계수	C.R.	p값	조절 효과 p값	가설 검증
학업스트레스 →우울감	남	.279	4.011	.009	.029	채택
	여	.373	13.651	.000		
학업스트레스 →자살충동	남	.137	3.308	.019	.463	기각
	여	.201	4.537	.001		
우울감→ 자살충동	남	.452	7.510	.000	.013	채택
	여	.382	4.549	.008		

V. 결론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우울감을 통하여 자살충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인과관계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해 보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변수의 기술적 통계분석결과, 청소년의 자살충동과 우울감은 보통 이하로 나타났으나 학업스트레스는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다. 먼저 청소년의 자살충동이나 우울감이 보통 이하라 하지만, 이 수치는 전체적인 평균수준이라는 점에서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수준의 심각성을 나타내주는 지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 수준은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분석결과는 학업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은 전문계 고등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반면에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훨씬 높게 나타날 것으로 추론된다.

둘째, 각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 분석에서는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는 우울감과 자살충동에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청소년의 우울감은 청소년의 자살충동에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울감이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자살충동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학업스트레스가 한국의 사회문화적 특성임을 고려할 때 청소년 자살충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21, 22). 박영숙(2009)의 연구(22)에서는 우울이 학교생활스트레스를 매개하여 청소년 자살충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도 있는데, 이는 학교생활스트레스에 학업요인, 친구요인, 교사요인 및 학교생활요인이 모두 포함 되어 있어 유사한 분석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학업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모두가 충동적인 자살을 시도하거나 우울을 겪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분석결과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전인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성적을 높이는 것만이 최고가 아닌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따른 교육으로 주위로 부터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청소년들은 학업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청소년의 우울감이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은 가장 높게 나타나 청소년의 우울감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에 따른 우울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청소년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하여 청소년의 우울감이 해소되기 위한 전략이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우울은 청소년 자살을 예고하는 매우 위험한 요인으로 이 단계에 놓인 청소년들을 선별하여 치료함으로써 자살충동에 이르게 하지 않도록 청소년 자살예방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로 긍정적인 자아 찾기, 자존감 향상 등 예방적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울을 호소하는 청소년들에게 사회복지 실천가, 교사, 청소년 관련 전문가들은 심리적 상담의 지원을 통해 조기에 치료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충동에 이르는 인과경로에 있어서 인과관계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해 본 결과, 학업스트레스와 우울감 사이의 관계와 우울

감과 자살충동 사이의 관계에서 성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로 인한 우울감이 남학생들 사이에서 보다는 여학생들 사이에서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학업스트레스에 더 민감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청소년의 우울감과 자살충동 사이의 인과관계에서는 여학생들 사이에서 보다는 남학생들 사이에서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여학생들에 비해 남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더 충동적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심리적 특성이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접근전략이 달라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에 따른 정신건강의 문제는 매우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를 줄이고 우울감과 자살충동을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특히 가족이나 친구 그리고 교사지지와 같은 사회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청소년들은 가족으로부터 심리적 안정감과 지지체계의 기초가 마련되므로 부모자녀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가족 응집력이 중요하고, 가족지지를 구성하는 하위요인인 가족의 응집력, 가족 간 긍정적 수용력, 위기 대처능력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청소년기에 또래 집단의 형성과정에서 나타나는 친구지지 역시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래지지체계가 잘 형성되어 있다면 극단적 상황을 극복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또래집단의 지지와 관계형성이 중요하리라 판단된다. 교사지지 역시 학업스트레스로 인한 우울감과 자살충동을 억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청소년들에게는 교사의 자질이나 교사와의 친밀도, 수업의 형태 등이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학습과 과제에 대한 통제능력을 통하여 학업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능력을 키워줄 필요도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 방식은 자기보고 형식에 설문조사에 의한 것이므로 연구대상자들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응답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연구는 표본이 주로 전문계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라는 점에서 표본의 대표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REFERENCES

- [1] The National Police Agency, 『2009 Statistical Report』 . 2010.
- [2] Park, Byeong-Geum, "Exploration of Ecological System Factors on Adolescents' Suicidal Thoughts", a doctoral thesis, Graduate School of Chungbuk University. 2006.
- [3] Kim, Hyong-Soo, "Suicide Status According to Life Cycles and Preventive Measures", 『The Study on Welfare for the Aged』 134: 271 ~ 292. 2006.
- [4] Durkheim, E. Suicide, New York: The Free Press. 1897.
- [5] Lee, Bong-Gun, 『Abnormal Psychology』 Seoul: Sigma Press, 1999.
- [6] Yuk, Sung-Pil, "Exploration of Suicidal Variables and Development of Therapeutic Program", a doctoral thesis,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ersity, 2001.
- [7] Baumeister, R. L. "Suicide as escape from self", psychological review 97:90 ~ 113. 1990.
- [8] Jacob, D. and Brown, H. N. Suicide Understanding&Responding, Madison: International University. 1991.
- [9] Min, Sung-Kil, 『Recent Psychics』 Seoul: Iljogak Publishing 1998.
- [10] Kim, Ki-Hwan·Jeon, Myong-Hee, "Adolescents' Suicidal Characteristics and Types", 『Korea Child Welfare Studies』 9(1):127 ~ 152. 2000.
- [11] Moon, Gyeong-Sook, "The Effects of Academic Stress on Adolescents' Suicidal Thoughts: Mediating Effects of Affection to Parents and Friends", 『Children Academic Journal』 27(5): 143 ~ 157. 2006.
- [12] Sin, Min-Seop, "A Positive Study on Suicide Mechanism: Validity of Self-Escape Measures", a doctoral thesis,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1992.
- [13] Jo, Sung-Jin, Jeon, Hong-Jin, Kim, Jang-Hyu, Seo, Dong-Woo, Kim, Sun-Wook, Ham, Bong-Jin, Seo Dong-Hyok, Jung, Sun-Joo, Jo, Maeng-Je. "A Study on Suicide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Prevalence and Risk

Factors of Their Suicidal Attempts”, 『Neuropsychiatry』 41(6): 1142~1155, 2002.

[14] Hong, Young-Soo, “The Effects of Stress in Life and Psychosocial Resources on Adolescents’ Suicidal Behaviors”, a doctoral thesis,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Yonse University, 2004.

[15] Song, Dong-Ho, Lee, Hong-Sik, Jeon, Yeo-Sook, Jeong, Yu-Sook, “Psychiatric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Suicidal Attempts”, 『Neuropsychiatry』 35(6): 1366~1375, 1996.

[16] Reynold, W. M. (1998). “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17] Himle, David P., Srinika Jayaratne, and Paul Thyness(1989), “The Effect of Emotional Support on Burnout. Work Stress and Mental Health Among Norwegian and American Social Worker.” Journal of Social Science Research, 13 (January)

[18] Park, Jae-Yeon, “ Adolescents’ Suicidal Crisksand Resilience”, a doctoral thesis, Leehwa Women’s University, 2010.

[19] Fauistich, M., Carey, M., Ruggiero, L., Enyart, P. & Gresham, F. “Assessment of depression in childhood and adolescent : An evaluation of 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for Children(CES-DC)”,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3: 1024~1027. 1986.

[20] Kovacs, M. “The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Psychopharmacology Bulletin 21: 995~998. 1985.

[21] Kim, Sun-Gyu, “Risk and Protective Factors Influencing Adolescents’ Suicide -Centering on Mediating Effect of Protective Factors-”, 『Mental Hygiene and Social Work』 Vol.29: 66~93. 2008.

[22] Park, Young-Sook, “Protective and Risk Factors of Adolescents’ Suicide: Relationships Between School Life Stress, Depression, Parent Relationship, Friendship and Suicide of Students in College-Bound and Business-Bound

High Schools”. 『Korea Youth Research』 20: 221~251. 2009.

저자 소개



노 윤 채

2012 : 조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현재: 광주광역시 자살예방센터 상담원

관심분야: 청소년 및 가족복지, Email : abstain77@daum.net



김 경 속

2008년 : 조선대학교 사회복지학박사

현재: 조선이공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관심분야: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정책, 보육학
Email:kkysuk1@hanmail.net



박 희 서

1993년 2월 : 서울대학교 행정학 박사

1989년~현재: 조선대학교 행정복지학부 교수

관심분야 : 사회복지행정, 정책학,
Email:spark@chosun.ac.kr